2013
5/12 날씨 맑음

1-3 이현

오늘 날씨는 참 좋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사이로 내려온다. 오늘은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서울 조각 페스타가 열리는데 날씨도 나를 돕는거 같다. 좋은 날씨와 함께 나는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다. 사실은 어제 같이갈 친구를 찾았는데 아무도 같이갈 친구가 없다. 예상했던 봐 있지만 솔직히 실망했다. 이렇게 예술작품에 관심이 없다니... 할수없이 혼자서라도 가기로 했다. 예술의 전당으로 전철을 탔다. 전철에서 책을 읽으면서 약 1시간 반정도를 가서 예술의 전당에 도착했다. 여러가지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 조각 페스타에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수 있었다. 대부분 한국작가들이 전시되었지만 외국작가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몇몇 부스에는 실제 작가들이 있어서 작가들의 ~~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작가의 생각을 들을수 있었다. 작품들을 관람중 친구에게 카톡이 왔다. 카톡 보다가 예술의 전당에 있다고 말하자 나도 부르지 라고 했다. 아... 진작 부를껄... 오늘은 혼자가서 아쉽지만 다음에 같이갈 친구를 찾아서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그 친구를 잘 진해야 겠다. 이야기할 때도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좋고 참 좋은 친구일거 같다. 오늘은 정말 문화생활을 잘한거 같고 즐거웠다.